

‘미군 철수’ 아프간서 연일 폭탄테러

이번엔 버스공격 13명 사망

카불 학교 68명 사망 후 또 참변

정부군-탈레반 공방 격화

지난 1일부터 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일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카불의 한 학교 앞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테러로 68명 이상이 숨지는데 이어 9일과 10일에도 민간인을 겨냥한 폭탄 공격이 이어졌다.

10일 아프간 톨로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남부 자불주의 샤프 에 사파 지구에서 버스를 겨냥한 길가 폭탄이 터지며 승객 11명 이상이 숨졌다.

아프간 내무부는 “버스가 공격 대상이었으며 폭탄은 탈레반이 설치했다”면서 “2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레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이날 오전 중부 파르완주의 풀 에 마타크 지역에서도 역시 버스를 겨냥해 길가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파르완 병원장인 카심 상인은 “부상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이 공격과 관련해서도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8일 카불의 한 학교 근처에서는 연쇄 폭발 공격으로 인해 68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다.

희생자 가운데 7~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여학생이었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아프간에서는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군-탈레반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고 곳곳에서 테러도 빈발하는 상황이다. 탈레반은 미군이 공식

철수를 시작하자 헬만드주 등 여러 곳에서 최근 대규모 공세를 벌였다.

탈레반과 함께 현지에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도 여러 테러를 일으켰다. 2014~2015년부터 아프간에 본격 진출한 IS는 평화협상과 미군 철수 등 정세 변화를 틈타 최근 영향력 확대에 더욱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IS는 2019년 8월 카불 서부 결혼식장에서 자살 폭탄테러를 감행 무려 63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카불대에서도 충격 테러를 주도해 20여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군과 동맹군을 5월 1일까지 아프간에서 철군하겠다고 탈레반과 평화 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5월 1일부터 아프간 철군을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전날 발생한 폭탄테러 희생자들의 단체 장례식이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전날 카불의 한 학교 앞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로 최소 68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반군부 미얀마 시인 구금 중 사망...아내 “장기 없는 시신으로”

쿠데타 발생 후 시인 780명 사망

미얀마 반군부 활동을 벌이던 시인이 군경에 끌려가 고문받은 뒤 장기 없는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가족이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미얀마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사가잉 지역에 사는 시인 켓 띠(Khet Thi)가 아내와 함께 무장 군경에 끌려갔다. 켓 띠는 “그들은 머리를 쓰지만, 가슴 속의 혁명은 알지 못한다”는 문장을 쓰는 등 작품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저항’을 표시해왔다.

켓 띠의 아내는 “지난 토요일 군경에 끌려가 남편과 떨어져 각각 신문 받았다”며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내게 전화해 몽유와의 병원으로 와 남편을 만나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도착했더니 남

편은 영안실에 있었고 장기가 제거돼 있었다”며 “병원 측은 남편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조작한 것이 분명하기에 사망진단서를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아내는 “군인들이 남편의 시신을 매장하려 했지만, 시신을 제발 돌려달라고 간청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켓 띠는 신문소에서 고문을 당한 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켓 띠의 친척들은 시신에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외신들이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응답하지 않았다. 군경에 끌려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시인은 켓 띠가 처음이 아니다. 특히, 시신을 돌려받고 보니, 장기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네티즌들이 군경의 ‘장

기 탈취 밀매’ 의혹을 제기하며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시신의 가슴 부위나 배 부위에 길게 봉합한 자국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군부 시위대를 유혈진압 하면서 시인 780명이 숨지고, 4899명이 체포됐다. 각각각층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화계 인사들도 열정적으로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했다.

켓 띠를 포함해 미얀마 시인 최소 3명이 군경에 살해당했다.

3월 초 몽유와에서 반군부 시위에 참여하다 총에 맞아 숨진 시인 크 자 윈(39)과 켓 띠는 친구 사이였다. 켓 띠는 2012년 회사를 그만두고 시를 쓰는 일에 집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만들어 팔았다.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9일 올림픽 육상경기 테스트 대회가 열린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 주변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유권자 59% “올림픽 취소해야”

정부 코로나 대책 불만 최고조

오염수 해양방출 51% 긍정 평가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두 달 반가량 남긴 가운데 일본 유권자 과반은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7~9일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0일 보도했다. 관람객 없이 개최하는 의견이 23%였고 관람객 수를 제한한 상태로 개최하는 답변은 16%였다.

코로나19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대책에 관한 유권자의 불만은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68%를 기록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은 23%에 그쳐 지난달 2~4일 조사 때보다 12% 포인트 하락했으며 작년 2월 이런 질문을 여론조사에 반영한 후 가장 낮았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은 43%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떨어졌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 포인트 상승해 46%를 기록했다.

차기 총리로 어울리는 인물로는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23%의 선택을 받아 선두를 달렸고 2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19%)이었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3%), 아베 신조 전 총리(11%), 스가 총리(4%)의 순이었다.

스가 총리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중국에 대한 한다는 태도를 부각한 것에 대해서는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47%가 찬성하고 41%가 반대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거른 뒤 해양 방출하는 구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각각 51%, 4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기차, 2027년 내연차보다 생산단가 낮아져”

블룸버그 NEF 전망

배터리 가격 하락 등 영향

배터리 가격 하락, 전용 생산라인 구축 등으로 늦어도 2027년까지는 전기차의 생산 단가가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차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9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블룸버그NEF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생산 단가가 동등해지는 시점이 된다면 매우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대형차는 2026년까지, 소형 전기차는 2027년까지는 내연기관차와 생산단가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형 전기차 세전 평균 소매가격은 3만3300유로(약 4500만원)로, 1만8600유로(약 2500만원)인 휘발유 차량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생산단가 하락으로 정보 보조금 없이도 2026년에 1만9000유로(약 2600만원)로 가격이 똑같아진 뒤 2030년이 되면 전기차가 1만6300유로(약 2600만원)로 1만9900유로(약 2700만원)인 휘발유 차보다 싸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전망은 전기차 가격의 4분의 1에서 5분의 2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기반으로 한다. 브뤼셀에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인 ‘교통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은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58% 하락해 kWh당 58달러(약 6만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가격이 kWh당 100달러(약 11만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차 점유율 확대에 전환점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상 이점을 없앨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세계적 자동차 회사 수익성이 좋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